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음 6월 25일) 제18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단상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전북도, 광복 72주년 기념행사 개최

“고귀한 뜻 이어받아 새 역사 쓰자”

도내 유일 생존 애국지사 이석규씨의 애국정신 소개

전북도는 15일 역사적인 광복 제72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과 함께하는 화합과 경축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조병서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경수 제35보병사단장 등 주요기관장과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도민, 학생,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기념식에서 도내 유일 생존 독립 애국지사인 이석규(91)씨의 애국정신을 소개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업적

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백범선생의 뜻을 기려 임동창이 만든 노래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와 민요 '내고향 좋은씨고'가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원의 소리와 함께 연주됐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뜻깊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역사를 물려준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우리 전북도가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념식 후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장 등은 송천동 독립운동 추념탑을 찾아 헌화 분향했으며 12시에는 풍남문 종각에서 33회 타종행사를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후백제 역사문화유산 지도 완성

전주시, 도성 추정 노송동 등 유적지 조사결과 토대로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완성도 높아질 듯

전주시가 후백제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관련 유적과 문화유산 등을 표기한 유적지도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후백제 역사문화유적 발굴과 복원이 가능해져, 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주 원도심 100만평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하는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후백제의 궁성 및 도성으로 추정되는 노송동 등 전주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후백제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백제 문화유산의 지도를 완성했다. 정밀지표조사를 진행한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물왕벌 및 기차촌, 동고산성, 남고산성, 무릉마을, 왜망실, 황방산, 어은산, 다가산, 완산철봉을 비롯해 전주부사에 기록된 후백제 추정 산성터와 산성 내부 등 500만평을 대상

으로 직접 도보답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조사도 병행, 후백제 유적 33곳을 신규 발굴했다. 신규 발굴된 유적지는 남고산성 추정 행궁지 등 성곽유적 11개소, 황방와요지 등 생산유적 5개소, 무릉 추정 왕릉군 등 분묘유적 6개소, 옥녀봉 유물산포지 등 생활유적 5개소이다. 특히, 남고산성 내의 추정 행궁지는 후백제때 사용했던 초석이나 기단석들과 기와들이 수습돼 후백제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중저수지 인근 무릉고분군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든 대형 분묘형태로 조성돼 있으며, 산 정상부에서는 정연하게 배열된 숲이 발견됐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향후 후백제와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생산유적인 왜망실의 우아동와요지에서는 수많은 기와편과 가마벽체편 등이 발견됐으며, 네모 형태의 전돌편(길이 25cm, 두께 6cm)도 확인되고 있어 관아에 필요한 기와 등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번 정밀지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유적의 성격 등을 밝히기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후백제 유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릉마을 고분군을 비롯해 도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향후 후백제 문화유산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재조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계획이 완성되면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 후백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정비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가 후백제의 왕도(王都)라고 하지만 왕도(王都)로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구체적인 유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가 확보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후백제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지역 긴급재난문자 오늘부터 지자체 직접 발송

16일부터 산불과 지진, 유해화학 물질유출 등 현상상황 판단이 필요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문자(CBS)를 직접 발송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월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올해 5월 발생한 강릉산불 당시 CBS 문자 발송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시·도에서는 CBS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 지진, 유해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상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17개 시·도에서 직접 승인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행안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정보 등은 제외된다. /뉴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은 안돼”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 우리가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통해 본인이 한반도 평화 구상을 통해 제시한 대북(對北) 해법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는 동맹국의 의존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우리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면서도 과거사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 등 국제사회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으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북한

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기존 베를린 구상 내 ‘핵동결 대화구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미의 공동된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선 끊임 없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한일관계 회복 조건으로 걸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뉴스

매일 INDEX
5면 - 다시 울려 퍼진 풍남문 종소리

2017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www.firefly.or.kr
제21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축제 2017.8.26(토) ~ 9.3(일)
The 21st Muju Firefly Festival
무주군일원 | 지남공원, 등나무운동장, 남대천,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2017 무주 남대천 물축제 8.26~27, 9.2~9.3 (4일간)